

인터뷰 권영해 (權寧海 추밀공파 34세) 前 國防部長官

경천애인(敬天愛人)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경건하게 받아들이며...

대중회 고문단 회의가 끝나고 오리고 기에 복분자 파티, 잠시 만나뵈 권영해 (前 國防部長官) 축전은 武官이라기 보다 교장선생님 같은 온화한 품모이다. 지난 이력이 다사다난하여 엄청난 이야기 거리가 있을 것이고 ‘남기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 오늘은 권문의 발전에 대해 몇 마디만 들을 기회를 가지고 후일을 기약하기로 했다.

오늘 ‘고문단 회의’가 있었는데 한말씀 하신다면..

- 고문이라면 권위있는 조력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줘야지요. 잘못하면 고문(顧問)이 아니라 고문(拷問)이 되니까요. 즉, 고문이란 그저 나 이 먹는 사람에게 주는 의례적인 명칭이 아니라 애정있고 진정성 있으며 권위있는 역할을 하는 자리였으면 해요.
- 특히 지금 처럼 老壯靑의 분열이 심한 시대에는 더욱 그 간격을 이런 노력으로 좁혀나가야 합니다.
- 인간은 깨달음의 동물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正體性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근본이 자신이 나온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종친들의 모임’입니다.

權氏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 처음으로 족보를 만들고 선비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한 DNA는 면면히 흘러 내적 자부심과 외적 존경의 대상이 됨은 솔직히 부인 할 수가 없지요.
- 우선 국난에 처쳐 일어난 선열중에 축전의 수가 많음은 물론, 명예를 존중하고 정직과 청렴을 자량으로 삼는 권문의 정신은 매우 귀중하다 할 수있지요.
- 안동 권씨 하면 ‘아 양반이군요.’ 안동이 그렇고 권씨가 그렇고 이것은 그냥 생겨난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그 생물학적, 문화적 유전자의 영향이라 볼 수있지요.
-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그래서 우리 보다 후손의 앞날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난 날 아버이는 ‘자식이 아비 보다. 훨씬 낫다.’ 하면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곤 했지만, 우리가 ‘아비가 훨씬 낫다.’라는 말을 면전에서 들으면 흐뭇 할까요?그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 인생의 ‘마디’는 대나무와 같아서 처음 굽게 자란 마디의 나무는 나



권영해 전 장관(왼쪽)

중에도 굵은 것이 됩니다. 그 마디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그 옛날 부하들에게 ‘군대 생활이 피동적이라 하더라도 그 시절은 인생의 마디에 있어 매우 귀중한 ‘청춘의 마디’이다. 이 마디가 신선하지 않다면 다음 마디인 사회에 나가서도 결코 인정 받는 인생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총검술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면 귀관들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마디’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한 적이 있지요.

- 모든 것은 사슬(chain)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고리가 빠지면 모든게 힘을 잃고 의미가 줄어들지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하늘의 뜻입니다.
- 먼저 건전한 정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요. 그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요.
- 인생관이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 기독교 장로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敬天愛人’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해요. 창조주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그의 넉넉한 사랑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는 삶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해도 어려운 일니까요.
- 뭐 이 성경귀절로 대신하여도 충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기도 하고요. <그림>
- 가족관계는 어떠신지요? 어린 시절 기억은요?
- 딸이 셋인데 막내는 40으로 자기 일(임상영양학)이 重하다고 미혼이고, 하나는 미국에서 교수랑 살고, 둘째는 호주에서 변호사랑 살고 뭐 평범하지만 딸말이 없으니 감사하는 것이지요.
- 집사람은 아직도 그 늙은 차로 나

를 데리고 다니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좌우간 건강하니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 아- 나는 97년9월9일이 생일인데 경주시 와동을 입실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권태훈)가 교직자라 여기 저기 많이 옮겨다녀서 초등학교는 문경 산북초등학교 26회 졸업이고, 중학은 아버지가 설립한 경주 와동중학으로 전학해서 1회생이 되지요. 고교는 경주고등학교 4회, 그뒤로는 뭐 이력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되지요.
- 기억이라면 8살 때 문경군 동로면 개울가에서 한창 물장난 하는 데, 펄가리에 함성 소리, 그것이 바로 해방된 날이었지요.
-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관리 비결은요?
-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쁨을 때는요?
- 건강은 80이니 별로 좋지 않다고 봐야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글썽~ 당장 ‘建國會’ 활동을 하니 그것이나 좀 젊은 사람에게 넘겨주고 가면 어떤가 하는 바람이 있지요.
- 그리고 냉정하게 봐서 67세 남자가 80세 까지 살아있을 확율은 현재 기준으로 30%이고, 85세까지는 15%,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90세까지는 5%요. 내가 80이면 85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50%, 90세까지는 30%요.

- 즉 앞으로 움직이면서 말하고 이럴 나이는 겨우 5년이요. 이 기간 동안 뭐라도 마무리가 되어 한다는 것이지요.
- 나이에 맞는 삶, 나이를 거역하지 않고 順天하는 생활, 그러다가 모든 기력을 다 쏟고 마지막날 까지 움직이고 말하다가 잠드는 듯 召天하는 삶, 이게 쉬운일이 아니겠지요. 겨우 3%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네요. 이젠 죽는 거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니..허~

- 아마 그것은 德이 쌓이고 몸쳐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 ‘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하겠지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니...
- 그리고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쁨을 때라면? 뭐 남들과 같겠지만, 저는 아까 말한 ‘凡事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그걸로 매일을 보내려고 해요. 뭐 쉽지 않았지만~
- 요즘 복잡한 세태인데 한마디 하신다면요?
- 우리 헌법1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로 나오는데 통일된 조국만이 진정한 ‘建國’이라고 볼 수 있지요.
- 그래서 남은 나날도 이 문제에 전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 앞으로 누구나 ‘뿌리를 알고, 섬의 근원을 찾아가는(知根尋源)’ 그런 종친회가 되었으면 하고 서로 돕고 아껴주고 부족한 것은 相補해가는 미풍양속이 재현되고 이어져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형식에 치우치고 해서, 깊이 있는 말씀은 여건상 불비함을 알기는 하지만 좀 섭섭합니다. 언제가 안정된 시기가 오면 현대사의 한 증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권영해 축전은 상당히 다양한 현대사의 비하인드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경력의 특성상 말을 아꼈었다. 그래도 권문의 名人으로 축전에 대한 애정은 남달라 보였다. 건강을 챙기시어 앞으로 자주 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쉬운 짝짝 인터뷰를 마친다.

글 : 권오철 기자

10월의 시

이슬처럼 별처럼



권태원(김삿갓)

시인 권태원(김삿갓)은 수필가, 소설가, 동양화가, 사진작가로 현재 활동

혼자 사는 사람은 아름답다
꿈 가까이 별 가까이
모여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눈물 가까이 슬픔 가까이
젖어 사는 사람은 평화롭다
가난 가까이 고통 가까이
함께 사는 사람은 자유포다
눈은 내려는데
산천 초목 위에 눈은 내려는데
외로운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中國 棗莊市 冠世榴園 권공헌 헌비 능묘 답사기



市政府廳舍에서 韓中合作



朱氏宗親과 權氏들

權恭獻賢妃(權仁妃)陵墓에 607年만의 相逢을 爲하여 事前 踏査를 간 中國 山東省 棗莊市 冠世榴園은 기네스북 登載 世界最大石榴田(2000万坪, 500万株, 年2万2千500万吨)이다.

象山과 獅子山の 품에 안긴 權妃墓(娘娘墳)와 1200年 銀杏나무의 古刹 靑檀寺의 박달나무, 산 꼭대기의 티벳 佛教 寺院 大光明寺의 風光은 雄壯했다.

棗莊市政府 外事僑務辦公室 國際合作科 責任者 張曉東 先生이 休日인데도 出勤하여 積極 協助하여주었다.

고즈넉한 權妃墓, 荒廢하지만 民間信仰의 場所가 되어서 吉日이 있으면 와서 祝砲를 터트린다고 한다.

明太脯와 果實, 安東燒酒를 놓고 略式으로 祭를 올렸다. 祭가 끝나고 封墳위로 올라가는 데, 호랑나비 한 쌍이 춤을 춘다(一雙胡蝶舞). 급히 핸드폰으로 撮影하니 輪廓만 보인다. 그런데 이때 울리는 팽배레 소리와 爆竹소리, 朱氏(永樂帝 朱棣)네 집 아들이 장가를 가는 데 여기서 祭를 드린다고 한다. 그래서 물어보니 正月 초하루, 대보름에 祭를 지내고, 慶事가 있으면 와서 香燭을 사르고 祈禱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기가 막힌 因緣이 아니고 무엇인가? 가져간 宗報(權妃 記事)를 한 부 주고,名脚을 交換하였다. 주광모(朱廣謨)라는 분이다. 追後 交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市政府에 陵墓가 너무 荒凉하니 나

무를 베어내고 封墳을 整備하고 場所가 狹小하니 封墳下의 田을 利用하여 臨時 設壇을 하고 懸垂幕등을 設置한다면, 儒敎式 傳統 典禮에 따라 祭禮를 奉行하겠다고 하였다.

또 10年 前에는 안보이던 寺刹(大光明寺)이 새로 생겨서 權妃墓의 願利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 이 또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

權氏의 本鄉 安東이 鄒魯之鄉이라 하는 데 棗莊市 위에 鄒城은 孟子的 故鄉이고 그 위 曲阜(魯國)는 孔子的 故鄉이다. 게다가 平和主義者 墨子の 故鄉이 棗莊市 藤州이고, 宋襄公의 兄 目夷를 紀念하는 目夷亭이 있으니 絶妙한 因緣이라 아니할 수 없다. 境內에 韓中文化園이 至今은 閉鎖되어 있음은 안타깝지만 與件이 좋아지면 열릴 것이다.

難題는 4-6時時間의 긴 移動으로 年老하신 분들이 參禮할 수가 있나 하는 것과 또 劣惡한 權妃墓 環境과 좁은 參禮 場所등의 補充이 急先務로 對策이 必要하다.

台兒莊 古鎮과 大運河, 鐵道遊擊隊 撮影場, 微山湖 濕地, 墨子記念館, 仙壇溫泉등도 볼거리가 될 것이다. 하여간 607年만의 相逢은 모두에게 幸運과 發福을 가져오리라 굳게 믿는다.

踏査者 : 事務總長 權五運
副 會 長 權建重
事務局長 權五澈

법무법인 利諸 권국헌 변호사



권국헌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수료(28기,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지적재산권법, 2002), 김장법률사무소(2002-2014), 공군법무관, 간송문화미술재단 감사(2013~현재) 등

권 국 헌 공정거래/M&A/분쟁담당변호사
김 관 하 인사/노무/자문담당변호사
이 선 중 경영컨설팅/내부감사담당변호사

대표전화 : 02-6367-5000

남 현 수 기업금융/M&A/지배구조담당변호사
유 정 훈 부동산/M&A/공정거래담당변호사
문 정 윤 인사·조직컨설팅담당변호사

사람을 존중하며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법률사무소
신뢰와 열정으로 고객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www.eje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1, 4층(삼성동, 동성빌딩)